



‘터키 명문’ 페네르바체체는 어떻게 김민재를 잡았나



2년간 노크한 유럽의 문이 드디어 열리기 직전이다. 김민재가 8일(한국 시간)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해 페네르바체와 이적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세부 조율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적료는 300만 유로, 계약기간은 4년으로 전해진다.

김민재 요구조건 대부분 수용 베이징과 이적협상도 속전속결

이적료 약 40억 4년 계약...메디컬 테스트 마쳐
막바지 협상도 순조...꿈의 빅리그 진출 교두보

축구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5·베이징 귀안)가 마침내 유럽 진출의 꿈을 이뤘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의 종착점인 터키 이스탄불에 연고한 ‘전통의 명문’ 페네르바체가 첫 번째 유럽 기착지다.

김민재는 8일(한국시간) 현지에서 도착해 9일 오후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고, 막바지 협상에 매달리고 있다. 현 시점에서 남은 과제는 크게 2가지로, 다음 이적에 대비한 바이아웃 금액을 확정하는 작업과 베이징과 잔여 연봉을 해결하는 일이다.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페네르바체와 베이징의 이적료 협상도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 중이라 지금으로선 큰 돌발변수가 없는 한 김민재는 2021~2022시즌부터 페네르바체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빈다. 페네르바체가 앞서 구단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김민재와 협상 사실을 공지하고 선수가 이스탄불에 도착한 장면을 담은 사진들을 공개한 것은 그만큼 이번 협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공식 발표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2020도쿄올림픽에서 ‘노메달’에 그친 한국야구가 도마에 올랐다. 해묵은 투지와 정신력 논란으로 인해 준비 부실, 수준 차이 등에 대한 객관적 문제 제기가 물결 정도다. 한국야구 전반의 실력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해법의 제시와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코하(일본) | 뉴시스

도쿄참사 한국야구, 현실에서 답을 찾아라

베이징때 류현진·김광현처럼 한 경기 잡아줄 투수가 없다

정신력으로 야구하는 시대는 지나
객관적 전력 열세, 준비과정도 미흡
베이징때 윤석민·봉중근 등도 건재
이승엽 위원 “야구인 모두 반성을”
장성호 위원 “데이터 활용 아쉬워”

김경문 감독이 이끈 야구대표팀은 2020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다. 성과를 떠나 최선을 다하고 경기를 즐긴 이들에게는 박수를 보내야 하나 야구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기대가 큰 만큼 부담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해묵은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언제까지 정신력 타령만?

일부 야구인들은 앞 다투어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배에 기름이 끼어서 그런지... 예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결국 도쿄 참사는 선수들의 정신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현실인식이다.

7일 동메달 결정전에서 도미니카공화국에 패한 뒤 주장 김현수는 방송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렸다. 대표팀과 동행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패배 후 울컥한 감정을 참지 못한 이는 김현수만이 아니었다. ‘배에 기름이 끼어’ 승부욕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다. 중계화면에 짧게 잡힌 행동이나 표정에는 이런 태도가 담기지 않는다.

이승엽 SBS 해설위원은 9일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승리하겠다는 정신무장 없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장성호 KBSN스포츠 해설위원 역시 “올림픽이든 정규시즌 한 경기든 지고 싶어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어디 있겠나. 정신력에 대한 지적은 분석과 침묵으로 승부하는 지금 시대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객관적 전력과 준비의 아쉬움

본질적 문제는 따로 있다. 투혼과 투지로만 경기하던 시대는 지났다. 객관적 전력과 준비과정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KBO 기술위원의 한 명으로 대표팀 선발과정을 함께했던 이승엽 위원은 “2000년 시드니대회 때는 구대성 선배가 있었다. 2008년 베이징대회 때는 류현진, 김광현, 윤석민, 봉중근 등 한 경기를 잡아줄 투수가 있었다. 이번 대회에선 그 부분이 아쉬웠다”고 돌아봤다.

단순한 전력분석이 아니라 세이버메트릭스 등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성호 위원은 “미국과 일본은 단기전 내내 적극적 수비시프트를 구사했다. 상대에 대한 분석이 확실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장면”이라며 “특정 타자가 좌투수 상대 타율이 얼마였는지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발사각도, 타구속도 및 분포도 등 세분화된 데이터로 무장하고 승부해야 단기전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구인 모두의 책임”

도쿄올림픽이 끝났다고 한국야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승엽 위원은 “이번 결과는 일본에 간 선수단, 코칭스태프만의 잘못은 아니다. 야구인 모두가 함께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내일(10일)부터 KBO리그 후반기가 시작된다. 내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도 계속 있다”며 “지금 팬들의 실망을 달랠 수도 없다. 이번엔 느낀 점을 와신상담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이전부터 원정 호텔 술판으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금지 않은 시선이 대표팀에 쏠렸는데 반전을 이루지 못했다. 해묵은 정신력 논란이 아니더라도 한국야구 앞에는 도덕 불감증, 객관적 실력 부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美 공영라디오 NPR, BTS 경제효과 분석



그룹 방탄소년단이 창출하는 연간 약 50억달러(5조7000억원)의 매출은 미국 경제 규모의 0.5%에 해당한다.

사진제공 | 빅히트뮤직

“BTS 연매출 5조 7000억 美 명목 GDP 0.5% 규모” 〈국민총생산〉

“엄청난 한류 파급...지구촌 경제의 동력
BTS가 만든 모든걸 구매하는 아미의 힘”

“BTS Inc. 지구촌 경제의 커다란 동력!”

그룹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또 하나의 힘이라는 시선이 나왔다. 특히 이들의 매출 크기가 세계 1위인 미국의 경제규모 가운데 0.5%를 차지한다는 설명도 덧붙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9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공영라디오방송인 NPR은 대표적 프로그램인 ‘모닝 에디션(Morning Edition)’에서 “BTS Inc.(방탄소년단 주식회사)”라고 방탄소년단을 소개하며 관련 분석을 내놓았다.

방송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찬욱 문화산업연구센터장의 말을 인용하며 방탄소년단의 “연간 약 50억 달러(5조7000억원)” 매출 규모가 미국 명목 GDP(국민총생산) 기준 22조 달러(2만5194조4000억원)의 0.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구촌 경제의 커다란 동력”이란 설명이 덧붙었다.

이어 이들이 “다른 산업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한국 관광·언어·영화와 방송·패션·음식 등에 대한 해외의 관심”을 높이며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방송은 ‘아미’인 마이클 히 자사 인턴사원이 방탄소년단의 노래 ‘봄날’의 한 소절을 부르는 모습과 함께 “방탄소년단의 노래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박지윤 LA 통신원이 전했다.

이 같은 가치는 결국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에게서 나온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매우 헌신적인 팬들은 그들의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쓰고 있다”면서 “방탄소년단이 만지는 모든 것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맥도날드와 협업해 내놓은 ‘BTS 밀(Meal)’이 전 세계 출시 50개국에서 매진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방탄소년단과 팬들의 “전혀 새로운” 소통 방식 덕분이라고 방송은 봤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진짜 삶의 어려웠던 시절 등 팬들의 친밀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며 자신들의 삶에 끌어들이어 오랜 친구처럼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박지윤 통신원은 “실제 아미인 인턴직원을 출연시켜 ‘팬심’이 가득한 리포트”를 방송이 내놴다면서 “초창기 케이팝의 독특함을 흑시라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팬들도 있음을 방탄소년단이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는 마이클 히의 언급을 강조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용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작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100% 국산

저온농축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